

전동익 목사 STP 17기

2016년 11월 조금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설악캐스팅 호텔에 당도했다.

그 밤을 보내고 세미나 첫 날 첫 시간을 맞아
지하 세미나 장으로 향했다.
실내에서 울려퍼지는 찬양 반주소리는
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약간의 긴장감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다.

아마도 그 즈음에
가장 뜨겁게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던 것 같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

그동안 침체되었었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강력한 도전이 밀려왔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다!
충격 그 자체였다.

어찌 목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큰 충격과 동시에
회의와 거부의 마음이 밀려왔다.

우리 목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먼 곳까지 큰 비용을 들여 달려온 목사를
이렇게 매도 해도 되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 수록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목사였다는 사실과
짜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의 회개기도가 터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새로 얻은 인생이었고
다시 시작하는 목회였다.

꿈같은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